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5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수완병원

기아·광주FC 지정병원

구급차·의료진 지원도

“여러분의 평생건강 지킴이 광주수완병원이 ‘희망·나눔·봉사’의 아이콘으로 거듭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지정병원이자, KIA 타이거즈 재활 지정병원인 광주수완병원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민족의 강인한 3·1정신을 이어받아 지역민의 평생건강 지킴이로 힘차게 질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고길석 대표원장은 “수완병원은 2011년 개원 이래 3·1절 마라톤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출전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에게 의료봉사는 물론 의료인으로서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다지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수완병원은 3월1일이 특별하다. 지난해 3·1절날 ‘종합병원’으로 승격됐다. 개원 2년여만의 쾌거다.

특화된 정형외과 관절센터를 비롯해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치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11개 과에서 진료하고 있다. 내년에는 응급의료센터 인력을 확충해 양질의 응급진료를 펼 계획이다.

스포츠에 강한 ‘시민의 건강지킴이’



KIA 타이거즈 지정병원인 광주수완병원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지역민의 평생건강 지킴이로 힘차게 달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수완병원 제공)

수완병원은 스포츠에 강하다. 프로야구선수협회 지정병원으로 9개 구단 선수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스포츠재활센터가 있다.

수완병원은 야구단뿐만 아니라 광주FC, 유소년축구단 등의 치료도 맡아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 주력하도록 서포트하고 있다. 의료진과 직원들의 이같은 노력은 지난해 큰 결실을 맺었다. 종합병원 승격과 더불어 KIA 타이거즈 프

로야구단 재활병원으로 지정됐다. 연말에는 프로야구선수협회로부터 선수들의 건강과 재활을 위해 전문 의료서비스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공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한편 수완병원은 응급상황을 대비해 대형 현장에 앰블런스 2대와 의료진을 지원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KIA 나지완이 23일 키구장에서 열린 SK와의 연습경기에서 9회 이재영을 상대로 우월 솔로포를 터트린 뒤 박기남의 환영을 받으며 홈으로 들어오고 있다. KIA는 3-5로 역전패를 기록했다. /D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호랑이는 ‘포지션 전쟁 중’

김여울 기자 KIA 전훈캠프 오키나와를 가다

이대형 가세 외야는 ‘정글’

브렛 필·김주형 1루 싸움

김선빈·안치홍 ‘키스톤’도

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KIA 야수들은 전쟁 중이다. 캠프가 종반으로 향해가고 있지만 어느 한구 안성권 포지션이 없다.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각축전 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기로만 따지면 9개 구단 최고의 외야 구성이 가능하다. ‘슈퍼스타’ 이대형의 가세 속에 발빠른 3할 타자 신중길과 역시 빠지지 않는 스피드의 김주찬이 버티고 있다.

KIA는 23일 키 구장에서 열린 SK와의 연습경기에서 스피드에 초점을 맞춘 라인업을 내놓았다. 신중길·김주찬을 테이블 세터로 해서 이대형을 9번에 배치, 9-1-2로 이어지는 스피드 타순을 만들었다.

재활중인 김원섭도 시즌 중에는 합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피드는 최강이다. 외야의 무게를 더하는 것은 나지완이다. 지난 시즌 4번 타자로 자리를 굳힌 나지완은 올 시즌에도 타선의 중심이다. SK전에서도 2-5로 뒤진 9회말 이재영을 상대로 우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트리며 몸을 풀었다.

근육무를 끝낸 김다원이 남다른 판치력으로 투수를 노리고 있고, 이종환도 파워로는 뒤지지 않는다. 신인 박준태의 성장

세도 경쟁에 불을 붙였다. 박준태는 뒤늦게 캠프에 투입된 대졸 신인. 합류 첫날 연습경기에서 3루타를 때리며 눈길을 끌었고 어깨가 약한 외야에서 최고의 강건으로 떠오르며 선배들을 위협하고 있다.

내야로 눈길을 돌려도 치열함 그 자체다. 최희섭이 빠져있지만 1루 경쟁은 여전하다. 외국인 선수 브렛 필이 외야보다는 1루 쪽에 더 초점을 맞춰 기용되면서 달라진 김주형이 1루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김선빈·안치홍 ‘꼬박 키스톤’자리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23일 안치홍은 유격수 김민우와 호흡을 맞췄다. 경기 중반 이후에는 대졸 신인 강한울과 역시 2년차 신예 김광연이 각각 유격수와 2루수 자리에 섰다.

내선에서 이적한 김민우는 전전후 내야수로 다양한 조합을 가능케 하는 카드다. 유격수로 나온 이날도 5회 일흔의 안타성 타구를 땅볼로 둔갑시키며 점수를 쫓았다. 전천후 수비수로는 박기남도 빠지지 않는다.

신인 강한울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대학리그 최고의 빠른 발이었던 강한울은 ‘경기를 풀어나가는 센스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시절 포지션 2루수가 아닌 유격수 시험을 받고 있지만 팬층은 어깨와 수비로 1군 진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수비로는 형님 강한울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았던 고졸 신인 박준태가 연습경기 가능하기 때문에 스피드는 최강이다. 외야의 무게를 더하는 것은 나지완이다. 지난 시즌 4번 타자로 자리를 굳힌 나지완은 올 시즌에도 타선의 중심이다. SK전에서도 2-5로 뒤진 9회말 이재영을 상대로 우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트리며 몸을 풀었다.

근육무를 끝낸 김다원이 남다른 판치력으로 투수를 노리고 있고, 이종환도 파워로는 뒤지지 않는다. 신인 박준태의 성장

연습경기와 함께 뜨거워지고 있는 경쟁. KIA는 24일 한화와의 연습경기를 통해 테스트를 이어간다. wool@kwangju.co.kr

조선이공대 특전부사관학과

3·1절 기념 세승 호국정신 함양

‘예비군간부’ 병역·취업 동시해결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며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조선이공대 특전부사관학과(학과장 김성식) 교수진과 미래의 군(軍) 초급간부를 꿈꾸는 학생들이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숭고한 3·1 정신을 되새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특전부사관학과는 건전한 국가관과 직업윤리, 강한 정신력, 리더십을 갖춘 국방 초급 간부를 양성해 국방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한국 최초로 육군과 초급간부 양성 협약을 체결한 뒤 특전부사관학과를 개설, 각군의 특전부사관 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학년 48명, 2학년 40명 등 총 87명의 학생은 예비역 대령 3명을 포함한 교수 4명의 지도 아래 정신을 단련하고 배움에 힘써 국가의 중추인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마라톤대회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참가하는 이상춘 교수는 지난해 동국대 일

특전 정신으로 ‘안 뛰면 뛰게 하라’



조선이공대학교 특전부사관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3·1절 마라톤대회 출전에 앞서 국군 예비 초급간부로서 군사강국의 초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조선이공대 부사관과 제공>

반대학원 북한학과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을 분석한 ‘김정일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 행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학계에서 북한의 일반협상에 대한 논문은 일부 발표됐으나 순수한 남북 군사협상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은 처음이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2000년대 김정일시대

북한의 군사협상 행태가 북한의 전락문화를 형성한 ‘왕일 유격대식 협상모델’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각종 군사협상 사례를 들어 증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강원도 화천 7사단 GOP 철책에서 대대장으로 근무 당시 육군의 가장 권위있고 명예스러운 ‘참군인 대상’ 중성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재경기자 hafip@kwangju.co.kr

‘특전부사관학과=조선이공대’라는 수식처럼 특전부사관학과는 병역과 취업이 동시에 해결돼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이 자치 취업에만 이렇듯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되며, 국가를 우선시하는 군인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경기자 hafip@kwangju.co.kr

산행 안내

- 2월 26일(수) ▲광주청정산악회 2월 26일(수) 전남 광양 백운산, 07:40 영주체육관, 07:50 백운동로타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예술회관 후문, 08:20 동광주IC입구 * 다음카페 광주청정산악회 ☎ 011 646 3450, 011 259 0284

- 3월 2일(일) ▲광주세무등산악회 3월2일(일) 충남 태안(노을길 5코스), 백운동 부일자동차공업사 07:30 출발, 광주역 08:00, 문예예술회관 후문 08:10 * 다음카페 세무등산악회 ☎ 010 3616 6300, 010 3901 5667

- 3월 9일(일) ▲광주청정산악회 3월9일(일) 고성 연화산, 원산동 오민석신경외과 07:00, 남구의회 맞은편 07:10, 금성주유소(봉성동) 07:15, 신세계백화점 옥교역 07:20, 문예예술회관 후문 07:25, 비엔날레주차장 도로가 07:30

- 3월 12일(수) ▲광주청정산악회 3월 12일(수) 전남 구례 계곡산, 07:40 영주체육관, 07:50 백운동로타리, 08:00 교원공제회관, 08:10 문예예술회관 후문, 08:20 동광주IC입구 * 다음카페 광주청정산악회 ☎ 011 646 3450, 011 259 0284

- 3월 15일(토) ▲광주금당산악회 3월15일(토) 충북 영동 백화산, 주영봉, 진월동 한마음아트홀 06:20, 영주체육관주차장 06:30, 한국병원앞 06:40, 문예예술회관후문 06:50, 비엔날레주차장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 3월 16일(일) ▲광주한빛산악회 3월16일(일) 고흥 팔영산, 광주역 07:05, 운암동 예술회관 후문 07:15, 비엔날레주차장 07:20 * 다음카페 광주한빛산악회 ☎ 010 3131 3580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개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MOVIE HOLIC advertisement for Lotte Cinema, Megabox, and Columbus Cinema. Includes movie titles like 'The Man from Nowhere', 'The Healer', and 'The Man on the Roof', along with showtimes and prices.